유동수 국회의원 초청
제192차 원자력계 조찬강연회 개최

유동수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정책, 에너지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주최한 제192차 원자력계 조찬강연회가 7월 21일(금) 오전 7시 30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원자력계 인사 130여명이 참석한 이번 조찬강연회에서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 갑)은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정책, 에너지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유동수 의원은 강연에서 정부의 탈원자력 선포 이후 파급되고 있는 원자력계의 고심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한 뒤 '고리 1호기 퇴역의 의미',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에너지 수급 로드맵 수립의 과제', '원자력 안전 현안과 과제', '에너지 수급 로드맵 수립 방향 제언' 등의 소주제별로 유려한 강연을 진행하여 청중들의 많은 공감을 끌어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국내외 원자력산업 관련 현안 문제나 관심사항을 주제로 한 원자력계 조찬강연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